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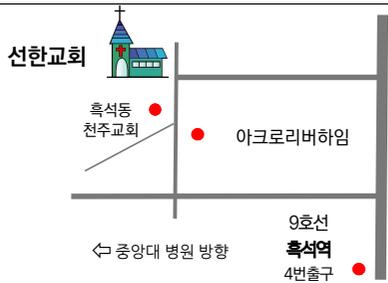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b>주 일 예 배</b>	1부 주일 오전 9:30	<b>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b>	
	2부 주일 오전 11:00		
<b>오 후 예 배</b>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b>중 국 어 예 배</b>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b>수 요 예 배</b>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b>금 요 기 도 회</b>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b>새 벽 예 배</b>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b>셀 가족 모임</b>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b>사 역 자</b>	담임목사 임 춘 배	<b>국 내 선 교 사</b>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b>해 외 선 교 사</b>	이금춘(김인실), 조나단(강야엘)
	전임전도사 김진만	<b>협 력 교 회</b>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b>은 퇴 장 로</b>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b>장 로</b>	박 영 근 (집사장)	<b>관 리 장 로</b>	손 석 규
	유 신 응, 조 윤 익	<b>500/50 교회</b>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사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Here am I, Send me!

실 천 사 항 기도의 삶 거룩 / 사랑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13-14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9: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오전 11:00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50장 (통일찬송가 71장)
교 독 문	교독문 17 (시편 29편)
찬 양 과 경 배	309장 (통일찬송가 409장)
대 표 기 도	윤호중 장로
말 씬 봉 독	마태복음 5장 3 ~ 6절
설 교	의에 주리고 목마른자의 복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그렇게 살아가리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롬13:1-7)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안내**
  - 주일예배: 2부(9시30분/11시)로 나누어 드림 (11시 예배영상 제공)
  - 주중예배: 수요일예배와 금요일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림 (영상제공하지 않음)
  - 각종행사: 체육예배를 포함한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개인건강훈련 안내**
  - 가정예배드리기
  -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 성경일독하기 [보충] ※일독 기념품 증정
  - 경건서적읽기
  - 부서별 카톡 성경공부
  - 성경암송(20구절): 습3:17 / 렘29:11 / 히6:14,15 / 요15:7 / 살전5:16-18
- 코로나19 기도 제목**
  - 코로나 19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 코로나 19 치료를 위해 중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코로나 19 확진자들의 완치와 빠른 백신 개발을 위해 기도합니다.
  - 중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 회개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 코로나 19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 코로나 19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를
	매순간 회복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우리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를

찬송 :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봐어도' 545장(통 344)

본문 : 창세기 41장 46절

말씀 : 한 나라의 총리가 되기에 30세라는 나이는 너무나 젊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나이를 두고 '겨우 서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요셉에게 있어 지나온 13년 시간은 구덩이에서 구덩이로 전전하는 고통의 시간인 동시에,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는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 기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훈련을 마쳤더니 '겨우 서른'에 총리가 되는 은혜를 얻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푸실 때는 먼저 우리를 은혜 받을 만한 '연단의 길' '검증의 길'로 이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함량 미달'로, '자격 불충분'으로 판정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덩이의 때를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잘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때에 요셉처럼 높아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삶은 돌고 돌아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길은 꿈을 이루는 최단 거리였습니다.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이집트로 내려가는 대상(隊商)을 만나지 않았다면, 보디발의 집에 팔리지 않았다면,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즉각 요셉을 꺼내 주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요셉이 이 집트의 총리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는 멀리 돌고 도는 헛고생을 하는 것 같겠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아래 직선의 길을 걷고 있음을 명심합시다. 순종의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요셉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절박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나 왕 앞에서 겸손히 자기 역할을 다하고 기다렸습니다. 출싹거리지 않았습니다. 내대지 않았습니다. 유능한 척하지 않고 그저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처분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 훈련된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침에는 죄수로 일어났는데 저녁에는 총리로 잠자리에 들면서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이 죄수로 감옥에서 깨어나며 아무 기대 없이 감옥에서의 하루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지난 밤 바로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만 해도 바로의 꿈 때문에 왕궁은 한바탕 소동이 있었지만, 요셉은 아무 것도 모른 채 감옥에서의 일상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한숨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요셉과 같은 이런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제목

의에 주리고 목마른자의 복 (마5:3-6)

서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행하며 살아가 행복합니다.

#### 1. 의에 주리고 목마른자

- (1) 육체적 생명은 음식과 물에 달려있지만 우리의 영적 생명은 의에 달려있다.
- (2) 주리고 목마른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 입혀지길 갈망하는 것이다.
- (3)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사55:2)
- (4)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복: '배부를 것임이요'(6절)

본론

#### 2. 교훈

- (1) 나는 무엇에 주리고 목마르고 있는가?
- (2) 의를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가?
- (3) 의를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결론

의에 주리고 목마른자가 되어 주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본문	신명기 20:1-9
	<p>가나안과의 일대 접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권면하는 모세는, 특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전쟁에 임하는 용사들에게 담대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우회할 수 있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나야 할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들의 극악한 범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도구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기성 세대는 광야 세대로서 본격적인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훈련이나 무기는 물론이고 심지어 전쟁을 위한 전투 식량의 비축도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열악한 여건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과의 전쟁을 반드시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사장들이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p> <p>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전투 경험이 거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여 용기를 불어넣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4절). 하나님께서는 막강한 나라인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후 지금까지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모세의 인도 아래 아말렉 족속 등과의 전쟁에서도 늘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친히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오신 분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신뢰하도록 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외에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닥친 어려움을 타개할 방법은 전혀 없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태도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난 역사를 회고하며 임종 시에 말하고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친히 쫓으시며 이스라엘과 함께하시는 분인 것입니다.</p>
묵상질문	1.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채로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요?
오늘의 기도	

찬양과 기도	우리들이 싸울 것은 (새 350/통 393)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p>라인하르트 본케 목사(1940~2019)는 수십 년간 전 세계 1억의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한 복음 사역자입니다. 1973년, 34세이던 본케 목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김벌리에 설교하러 갔습니다. 설교 후 참석자 중에 젊은이가 한 명도 없는 것이 궁금해서 물었더니 한 사람이 그를 큰 건물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인 빛나는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본케 목사에게 '안으로 들어가라. 네가 모르는 것을 보이리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본케 목사에게 그들을 위해 통곡하는 마음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성령의 음성이 복받쳤습니다. 본케 목사는 사장을 찾아가 간곡히 요청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토요일 자정 5분 스피치를 허락받았습니다. 토요일 밤 약속받은 시각에 음악이 멈췄고, 본케 목사가 설교를 시작하니 성령이 임하셔서 바닥에 앉은 젊은이들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분, 오늘 죄 사함을 받고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 분은 손을 드십시오." 본케 목사는 영접 기도를 드렸고 허락된 5분이 지나 클럽을 나왔습니다. 1년 후 설교하러 김벌리에 다시 방문했을 때 그 나이트클럽 건물 전면에는 네온사인 대신 거대한 흰색 십자가가 달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젊은이들이 달려와 포옹하며 악수했습니다. "저를 기억하세요? 목사님이 오셨던 그날 밤 제가 디스크자키였어요." "저는 그때 조명 담당이었어요." 그날 설교 이후 나이트클럽은 파산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p>
말씀 나누기	신명기 20:1~9
묵상포인트	<p>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영적 전쟁은 하나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가 우수한 병기나 잘 훈련된 병사들에 달려 있는 듯하지만, 실제 승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창조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사사 시대 기드온이 승리의 비결을 잘 보여 줍니다(삿 7장). 그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미디안 대군을 오직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300명의 군사로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싸움은 단순히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굳건히 동행하며 그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승리는 이미 주어졌습니다.</p>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이스라엘이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 제사장은 군인들을 어떤 말로 격려해 주어야 하나요?(2~4절)
적용하기	나는 너무 작고, 앞에 놓인 일은 크게 느껴져 두려웠던 적이 있나요? 두려울 때 내가 기억할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기	저를 낙담시키는 일이 눈앞에 많지만, 그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자체를 배려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도록 도와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찬양	찬송가 200장 달고 요요한 그 말씀
본문	신명기 22:1-12
	<p>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경배해야 함을 강조한 모세는 그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 삶 속에서 이웃에 대만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우양이나 나귀가 길을 잃은 것을 보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보았을 때 못 본 체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를 도와주고 찾아 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세세한 규정까지도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결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율법이었습니다.</p> <p>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몇 가지는 긍휼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새의 보금자리에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있거든 어미 새와 새끼를 다 취하지 말고 어미는 놓아주고 새끼만 취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새집을 건축할 때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율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들은 이웃이나 자연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긍휼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요, 이웃 사랑의 1계명이 될 것입니다.</p> <p>율법은 계속하여 정결함에 대하여 세세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복의 남녀 혼용과 식물의 잡종 파종을 금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순수성을 보존하며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성 유지를 위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요구된 사항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결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p>
묵상질문	1.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기도	

찬양	찬송가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본문	신명기 20:10-20
	<p>이 원칙은 이스라엘이 요단 강을 건넌 후에 곧 치러야 할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시행된 헤렘 전쟁의 원칙과는 차이가 있는 일반적인 전쟁의 원칙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가나안과의 전쟁은 특별한 경우로서 하나님께서는 별도의 명령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과의 전쟁 이후에라도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될 때의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을 최대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습니다.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 화친을 제의하고 그 화친 제의가 받아들여지면 전쟁 대신 조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제의해도 응하지 않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그 성읍의 남자는 다 죽이지만 여자들과 유아들, 재물들은 취해서 노예나 전리품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전쟁 윤리로 삼고 있는 원칙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있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강조하고 계십니다.</p> <p>위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전쟁의 원칙과는 달리 이스라엘이 요단 강을 건넌 후 곧 행하게 될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헤렘 전쟁이란 여리고 성 전투와 같이 군인들 외에도 남녀 노유를 포함한 모든 사람과 가축 등을 죽이고 모든 재산을 불살라 버리는, 말 그대로 진멸시키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전쟁의 윤리와 부합되지 않는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잔인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악이 만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하여 그러한 전쟁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p>
묵상질문	1. 가나안을 진멸하듯이 우리 삶에 진멸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의 기도	

찬양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본문	신명기 21:1-14
	<p>고의적인 살인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으로 처벌하라고 강조한 모세는 피살된 시체의 살해범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율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살해범이 누구인지 알 수 없더라도 무죄한 자를 피 흘리게 한 살인자의 죄는 반드시 대속받아야 했습니다. 그 대속의 절차에 대하여 모세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체가 발견된 곳의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읍의 장로가 대속을 담당할 희생 제물로 멩에를 멘 적이 없는 송아지를 골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험한 산골짜기로 끌고 가서 그 목을 꺾어 피 흘리게 하여 대속하고 대표인 장로들은 자신들이 그 주검에 대해 전혀 무죄하다고 선언하며 죽은 암송아지 위에서 물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속죄 의식은 피는 피로 갚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피흘림이 없이는 결코 사죄함이 없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표론적으로는 이 무죄한 피 흘림에 의한 대속은 그리스도의 인간을 위한 대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p> <p>전쟁에서 포로 된 여인을 사랑하여 아내로 맞이하려면 자기 집으로 데려가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그 부모를 위하여 일 개월 동안 곡한 후에 동침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포로의 성결 의식은 단순히 과거를 끊는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방에서 우상 숭배하던 삶의 습관과 신앙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옴을 서약하는 정결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 의식으로 할례를 행했지만 여자들은 위와 같은 의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족속의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은 절대 금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헤렘 전쟁으로 진멸될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p>
묵상질문	1. 나는 사회적으로 나보다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을 존중하고 있나요?
오늘의 기도	

찬양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본문	신명기 21:15-23
	<p>모세는 두 아내를 둔 가정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가 장자를 낳았을 경우 유산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내세우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자의 권리를 명백하게 보여 주는 율법 규정으로서, 어떠한 인간적인 편견이나 편애로 인해 가정의 질서를 허물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는 율법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율법이 일부다처주의의 배경을 전혀 문제삼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상과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 과정에 있어 아직 완전한 계시가 드러나지 않았던 상황으로 인해 그러한 일부다처제가 잠정적으로 묵인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한 상황을 당장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그 상황하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율법을 보고 취할 교훈은 외형적 틀이 아닌 내면적인 법 정신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모독하는 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파괴하는 자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공개 처형으로 그 죄의 씨가 제거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그 전체 사회의 질서가 강조되는 사회였는데, 그 근간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권위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p> <p>율법에 의하면 시체는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참조, 민6:11).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룩한 땅인 가나안에서 시체가 방치됨으로 인해 그 땅을 부정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처형당한 당일에 시체를 진 밖으로 가져가 매장함으로 그 시체로 인한 땅의 부정을 방지해야 했습니다.</p>
묵상질문	1. 하나님의 공의를 체험한 일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언제였나요?
오늘의 기도	